

■ 치과 칼럼

치아 상실에 따른 변화

이가 빠진 후 오랫동안 수복하지 않은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가 빠저도 씹는데 지장 없으니 그냥 놔두기로 했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물론 어떤 치아가 빠졌느냐에 따라 증상은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우선 어떤 치아가 제일 많이 상실되는지 알아보는 데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문헌들에 따르면 사랑니를 제외하고 상악 제1대구치, 즉 위턱의 제일 큰 어금니의 상실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뒤를 이어 하악 제1대구치, 상악 제2대구치, 하악 제2대구치 순으로 높다고 합니다. 이렇듯 어금니의 상실율은 다른 치아들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이유로 잇솔질법의 어려움을 가장 큰 원인으로 두고 있습니다.

아래 큰 어금니가 빠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부위를 수복하지 않은 채 오랫동안 방치했다고 하죠. 수차에 걸쳐 언급했듯이 치아의 위치는 주변 치아와 근육들이 이루는 힘의 균형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치아가 빠지게 되면 이런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되고 위쪽과 전후 치아들은 힘을 받지 않는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뒤쪽 치아는 앞으로 쓰러지고 위쪽 치아는 아래로 뒹굴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조화로운 교합의 형태를 무너뜨리며 장기간 방치했을 경우 브릿이나 임플란트로도 수복할 수 없을 정도로 공간을 상실하게 되고 악관절증이나 골근육계 이상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치아 배열의 불균형은 올바른 구강 위생법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고 결과적으로 잇몸질환이나 충치를 유발하는 위험 인자로 작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어금니가 모두 상실됐다고 가정해 보죠. 그리고 나머지 치아들은 제 위치에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하

죠. 큰 어금니들의 역할은 주로 음식을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어금니들은 다른 치아들에 비해서 크고 또 지지를 담당하는 뿌리도 두 개에서 많게는 네 개까지 있는 것도 이런 기능을 충실하게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치아들이 모두 상실되었다면 결국 남아 있는 치아들이 이 기능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고 그러다 보면 이가 자꾸 닳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 과정이 매우 느리게 일어나면서 근육들은 그 기간 동안 적응해버리기 때문에 가끔 악관절증을 일으킨다고도 하지만 어떤 특별한 증상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어느덧 이를 다물었을 때 치아가 상실된 부위의 위턱과 아래턱의 공간이 너무 없어 어떠한 보철물이 들어갈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임플란트가 심겨질 수 있겠지만 그 위에 만들어질 크라운을 위한 공간이 없어서 임플란트를 심어도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남아 없어진 치아를 크라운을 하든지 아니면 교정적으로 치아를 맹출시켜서 남아 없어진 만큼의 치아 부분을 복원시켜 올바른 교합을 재 형성한 후 임플란트를 다른 보철물을 통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선 공간 부족에 따른 여러 문제로 계획대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치아가 상실된 경우 바로 치과로 내원하여 원래 가지고 있던 상태로 바로 복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예방법임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YON DENTAL GROUP
Gene H. Park DDS, MS
한인치주임플란트수술전문
Garden Grove Office: (714) 530-1948
Fullerton Office: (714) 519-3932



■ 교육

대학 학자금 보조 신청 시 유의할 점

대학에 원서를 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대학 공부에 소요되는 재정을 도움받기 (Financial Aid) 위해 재정 지원 신청서를 내는 일이다.

재정 보조 신청서를 내야 하는 마감일은 서류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조기전형의 경우 빠르게는 11월 1일이나 15일부터 2월 중순까지, 정시의 경우에는 빠르게는 2월부터 시작하여 3월 혹은 그 이후까지 대학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다. 그러니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의 각 서류 제출 마감 시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재정 보조를 최대한으로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은 바로 기한에 맞춰 지원서를 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조를 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한다.

첫째,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은 자신들이 학자금 용자를 받기 위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무료 연방 학자금 신청서(FAFSA)를 아예 제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미국교육협회의 통계에 의하면, 저소득층 가정의 5분의 1은 보조 신청서를 내기만 하면 연방 펠그랜트(연간 \$5,775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도 서류 조차 내지 않아 이 보조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특히 가계 수입이 6자리(10만 달러)를 넘는 가정들의 경우 신청서를 아예 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가족의 숫자,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의 수, 가장 나이가 많은 학부모의 나이 등도 고려해 학자금 보조를 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연두에 두어야 한다. 설사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다 좋은 조건의 용자를 받을 수도 있다.

둘째, FAFSA를 작성할 때 필요한 자료들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 세금 보고서 작성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내년에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보조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2015년의 세금 보고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 회계사가 이것을 작성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단은 전체의 세금 보고서를 잠작해 예상 금액을 기입한 후 세금 보고가 끝나면 다시 정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보통 많은 대학들의 경우, 재정 보조는 일찍 내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FAFSA 신청이 가능한 1월 1일 이후의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셋째, 지원하는 학교명에는 자신이 입학하고 싶은 학교만이 아닌 지원하는 모든 학교의 이름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계획은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것이다. 한번에 열 군데까지 혹은 그 이상도 가능하다.

넷째, 부모가 이혼을 했거나, 재혼을 한 경우 또는 부모가 이혼을 했지만 어머니와 아버지의 집에서 오가며 생활하는 경우, 더 많은 재정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가계 소득이 더 낮은 부모님 쪽에서 더 오랜 기간을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섯째, FAFSA를 제출하면, 교육부측에서 가족의 학자금 예상 지출 금액(Expected Family Contribution)을 정해 이것에 기반해 모든 보조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 금액은 그 가정의 특수한 경제 상황(최근에 일어난 휴직, 실직이나 일하는 시간의 감소, 가장의 사망)을 반영하지 않기에 그 가정이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지나치게 높게 잡힐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등록할 대학의 재정 보조 사무실에 이 사실을 알리고 가능한 많은 금액을 보조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BRE #02036043
714-822-0345
3030 Old Ranch Pkwy. #400
Seal Beach, CA 90740
yeetakre@gmail.com



Yee Tak (탁 이석)
Economics and Certificate in Quality Analysis at Arizona State
건국대 경영학과

주택 / 커머셜 / 인듀스트리얼

부동산에 대한 모든것! 500명 이상의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정확한 통계 분석과 네고를 통한 최고의 가격 판매와 최저가 구매

Buena Park
Los Coyotes Countryclub

방 5 - 화 4 2,955 Sq
17,000스퀘어피트가 넘는 넓은 대지
백만불 이상의 이웃 주택들, 무한한 가능성
빠른 판매를 위해 가격. Sunny Hill High 학군

\$825,000

Anaheim
Stadium Loft

방 3 - 화 2 1,310 Sq 2 파킹
에너하임 스테디움, 디즈니랜드, 다운타운 디즈니
유씨얼바인 병원에 도보거리
다양한 최신식 편의 시설들

\$510,000

실비치
레저월드 55+

방 2 - 화 1 900 Sq
다양한 편의 시설
편리한 교통을 갖춘 최고의 시니어 단지중 하나인
실비치 레저월드입니다.

\$228,900